

대산단지, 2006년 수출 25억달러

천안세관, 충남 서북부 2006년 수출 350억달러 ... 플라스틱 15억달러

2006년 천안, 아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의 수출이 평판디스플레이패널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% 증가했다.

천안세관에 따르면, 2006년 충남 서북부지역의 수출은 350억달러로 2005년 311억달러 보다 12.4%인 39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반도체 수출이 138억달러로 5% 늘었으며,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은 103억달러로 14% 늘었다.

이밖에 석유화학제품 24억7000만달러, 석유류는 18억달러, 플라스틱 15억달러, 승용차 11억달러, 철강·기계류 38억달러 순이었다.

수출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23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68%를 차지했다.

2006년 수출이 두드러진 곳은 중남미 지역으로 10억8000만달러에 달해 2005년 5억2400만달러보다 108% 증가했다.

천안세관 관계자는 “2007년에도 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2006년 수입은 198억달러로 2005년보다 24% 증가했으며 원유 75억달러, 석유제품 30억달러, 반도체 원재료 27억달러 등이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11>